

황경식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드리며

정원섭
(건국대 철학과)

정년을 맞으신 황경식 선생님께 제자로서 삼가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황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로 부임하신 것은 1985년 9월이다. 그런데 내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것이 1985년인지라 선생님께서는 나를 두고 농담으로 입사동기라고 하시며 여러 모로 각별히 돌보아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윤리학 학부 전공 강의를 맡으셨던 1986년 1학기 강의를 시작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모두를 선생님의 지도 아래 마무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학술 활동 과정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을 추억하는 글을 쓸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분명 크나큰 영광이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만 늘어났다. 선생님의 크나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비한 내가 혹시라도 이글에서 선생님의 높은 학덕을 적절히 가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아둔함 탓임을 미리 밝혀 둔다.

1980년대 중반은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역설적이지만 이 시기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그러니 대학 안에서 특히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는 철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야말로 백가쟁명을 이루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 관공서 벽면마다 대문짝만한 글씨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가 항상 걸려 있었

으니 젊은 학생들이 “진정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실천적으로 청춘을 불살랐던 것은 그야말로 군사 독재 정권까지 포함하여 그 시대 모두의 요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교정의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과의 학문적 토론보다는 녹두거리 선술집에서 동료 혹은 선배들과 논쟁하였다.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실존적 고민에 묻혀 있던 학생들 역시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해답을 찾으려 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던 학생들은 ‘도돌이’이라고 불리며 자의반 타의반 따돌림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강의 시간에 일부 교수님들과의 진지한 토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내용상 외면당하기 일췌였고 학문 외적인 이유에서 “수업 거부” 역시 한 학기에도 몇 번씩 빈발하였다.

1986년 1학기 황 선생님께서 서울대 철학과에서 처음으로 담당하셨던 “윤리학” 전공 강좌의 강의실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은 전공이라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강의실에는 “윤리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개인적 결단을 강조하는 수구적인 학문”이라는 선입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수 번역하신 프랑케나의 『윤리학』을 교재로 삼아 예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강의하셨다.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에게 자신이 왜 탈옥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마치 황 선생님이 소크라테스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은 당면한 군부독재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던 학생들 눈에는 “한가하고 비현실적으로” 비추어졌다.

강의 내용은 지금도 그러하시듯이 언제나 교재에 충실하였으며, 강의 시간 또한 항상 2-3분 정도 초과할 정도로 성실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강의 중 그 당시 군사독재라는 당면한 현실에 대해 여담으로 조차 거의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언급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달여 지났을 무렵 선생님의 이러한 강의에 대해 수강생들의 당연한 반응은 대체로 “역시나!”였다.

그런데 중간고사에서 의외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지금 기억하건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우리 사회의 윤리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오.” 아니 강의 시간 중 우리 사회의 명약관화한 부정의에 대해 거의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다니 뭘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나는 윤리적 판단에서 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선생님의 강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던듯하다.

중간고사 이후 나는 강의실보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리는 집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였다. 어느 날 윤리학 수업을 뒤로 한 채 집회에 참석하러 가던 중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쳤고 껌연쩍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강의실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강의 주제는 이제 교재를 벗어나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것이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그 카랑카랑한 목청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는지 오로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정의에 대한 담론의 출발점을 사회 제도의 기본적 구조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황 선생님의 강의는 그야말로 꽤도난마였다. 학생들의 수강 분위기가 역시 지금까지의 “냉소”에서 “관심”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적어도 나만큼은 그러하였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무렵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물어 보았다. “롤즈의 정의론? 하하하. 그것은 완전히 현대 미국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이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은가? 기말 시험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이론적 허구성과 실천적 공허함을 지닌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전개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 선생님 연구실에서 그 때 답안을 다시 읽게 되었다. ‘무식한 자가 소를 잡는다’는 옛말 그대로였다.) 이제 필수 과목인 윤리학 강좌를 마쳤으니 “이것으로 끝!”이라고 내심 다짐하였다.

그리고 나는 학기말 보고서들을 건성으로 마무리하자 말자 농촌봉사활동 선발대로 경북 예천군 풍양면으로 갔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내가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닌 나의 고향이다. 어떤 이유에서 나의 고향이 농활 지역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지역은 가톨릭농민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촌봉사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음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농촌봉사활동은 의식화된 대학생들이 순수한 농민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군사독재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활동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농촌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황 선생님께서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님과 함께 아무 예고도 없이 이곳을 방문하셨다. 최 교수님은 서양사학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근 다른 마을로 가시고 그날 밤 황 선생님 혼자 학생들과 그 지역 농민들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환영받을 리는 만무하였고 오히려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서로 참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학생들 대부분은 저녁 일정에 따라 대화 자리를 일찍 자리를 떴지만 이곳이 고향인 나는 이곳 농민들과 선생님 사이의 대화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대화에서 나는 강의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 농민들은 도시와 농촌의 빈부 격차나 그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변되던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 말할 때 거침 없는 표현으로 울분을 토로했고 선생님 역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언급을 하셨다. 대체로 선생님은 강의실에서 뵈었던 것과 같던 그 예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끔은 강의실에서는 전혀 보여 주시지 않았던 특유의 재담으로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셨다. 농민들의 주장에 한편으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그분들이 기본 상하지 않게 선생님의 견해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 나가셨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에게 젊은 열정 못지않게 더욱 심층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회 닿을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날 대화는 한 분의 윤리학자가 자신이 놓인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Winston L. King이라는 불교철학자는 종교학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from detached within”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다. 일견 모순처럼 들리지만, 어떤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학자 역시 다를 수 없을 것이며, 이날 선생님께서 보여 준 모습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 윤리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의미에서 이날 밤의 대화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1989년 석사과정에 진학하면서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뵈게 되었다. 1989년 봄 학기 선생님께서는 강의 주제를 분석 맑스주의(analytical Marxism)로 정하시고 Jon Elster의 *Making Sense of Marx*(1985)을 교재로 삼으셨다. 하지만 그 당시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맑스의 원전을 직접 독일어로 읽는 것이었으며, 2차 문헌으로 맑스를 공부하는 것을 지극히 금기시하였다. 강의 첫 시간 수업 진행에 대하여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말자 이 책이 과연 읽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선배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선생님께서는 일단 읽어 보고난 후 평가는 나중에 각자 하자고 하신 후 첫 시간 강의를 마무리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간 그 첫 발제를 맡은 나는 교재 중 앞부분을 최대한 충실히 정리하여 발제를 마쳤다. 발제라기보다는 거의 완역에 가까운 것이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거의 완역에 가까운 발제를 요구하셨다. 이것은 교재의 내용에 대해 수강생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의 방침을 모른 채,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는 것을 발제라고 여겨 한 두 쪽으로 발제문을 준비하였다가 선생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은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발제가 끝나자 말자 교재의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보다는 Jon Elster가 맑스의 원전을 제대로 이

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비판이 붓물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 중 어떤 선배는 맑스 저술의 독일어 원전을 직접 들고 와 전거를 제시하며 맑스에 대한 Jon Elster의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맑스의 독일어 원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어안이 병병했고 선생님께서는 맑스 원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논쟁을 마무리지어셨다.

이런 식의 논쟁은 한 학기 내도록 이어졌고, 결국 엘스터를 통해 윤리적 주제들에 대한 맑스의 입장을 다루고자 한 선생님의 취지는 한 학기 내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맑스의 원전을 충실히 읽고자 한 선배들의 학문적 치열함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밑바탕에는 조금은 경직된 훈고학적인 선입견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거부감 역시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회에나 그 사회 나름의 ‘윤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이들에게 기존의 ‘윤리’는 억압적이고 심지어는 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윤리의 구체적 내용은 항상 변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헤겔식의 어법을 빌려 표현하자면 윤리 역시 언제나 자기 부정을 통해 새로운 윤리로 나아가는 지양의 과정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여러 종류의 ‘윤리들’과 이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심지어 우리 철학계 안에서조차도 ‘도리’ 혹은 ‘윤리’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현존하는 구체적인 규범들에 거부감이 윤리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부되어 윤리학 자체에 대한 자유롭고 심층적인 연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석사과정 첫 학기를 마무리한 후 나는 선생님 댁에서 따님들의 과외 공부를 맡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의 영화계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첫째 보임, 병원 경영 수업을 받으며 벌써 두 딸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둘째 여임, 그리고 의사가 되어 어머니의 의술을 이어가고 있는 막내 유임. 이 세 따님 모두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말이 과외이지 실상을 보자면 가난한 대학원생인 나에게 선생님께서 안정적인 호구지책을 마련해 주신 셈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돈 걱정 별로 없이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선생님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나는 선생님의 자모님으로부터 무척 큰 배려를 받았다. 참으로 다정다감하신 자모님께서서는 항상 정갈하고 맛있는 저녁 밥을 차려 주셨고 식사를 하는 동안 선생님의 어려웠던 가정사에 대해 그토록 밝으면서도 재미있게 들려 주셨다. (선생님의 탁월한 재담은 아마도 자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어려운 가정사를 두 모자분이 함께 헤쳐 오면서 자모님에게 선생님은 단순한 장님을 넘어서 자모님의 삶 그 자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둥이었을 것이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선생님께서는 자기 관리가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분이시다. 사실 30년이 가까운 동안 선생님과 여러 자리를 같이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선생님께서 근검과 절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그런 자모님께 몇 년 전부터 몸쓸 치매가 시작되면서 선생님께서는 요즈음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 자리를 줄이시고 계신다. 혹 불가피한 자리가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댁으로 가서 자모님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1990년 석사 3학기에 연구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학부 때 졸업 논문 발표가 있었지만 그것은 졸업을 위한 요식행위에 가까웠던 터라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는 학문적 능력을 검증받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었다. 사실 나는 석사 과정에 진학할 때 입학 성적이 가장 좋았고 선생님 강의에서 칭찬도 몇 번씩 들었던 터라 자신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의 연구 논문 초안을 읽고 난 후 나는 면담 자리에서 낮이 뜨거워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빨간 줄을 그어 놓으셨고 맞춤법에서부터 논증 방식에 이르기까지 2시간이 넘게 정말 철저하게 고쳐 주셨다.

그러나 나의 논지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존중해 주셨다. 그 당시 나의 연구 주제는 John Locke가 『시민정부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옹호 논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최초의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 차이를 재산권에서 찾고자 했고, 나아가 로크를 통해 현재 자유주의 사상의 근대적 시원을 밝혀 보고자 했다.) 지금까지도 로크에 대한 소위 지배적 해석은 C. B. MacPherson과 R. Nozick의 해석이다. 맥퍼슨은 『시민정부론』 27절(“양질의 공유물이 다른 이들에게도 충분히 남아 있다”는 구절)을 재산권의 크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석하였고, 노직의 경우 이를 로크적 단서(Lockean Proviso)라고 하면서 재산권 형성의 유일한 한계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 구절은 전혀 조건이 아니며 하나의 단순한 역사적 기술일 뿐이라는 주장을 과감하게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27절 문장을 표현 그대로 읽는다면 맥퍼슨처럼 조건문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나의 논변은 참 엉성하였다. 그럼에도 선생님께서는 나의 논변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모로 제시하시면서 다른 대안적 제한 조건으로 『시민정부론』에 나타나 있는 청지기 논변을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하셨다. 공개발표장에서 몇 분 선생님들께서 나의 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내 논지의 독창적인 면에 대해 나를 대신하여 적극 옹호해 주셨다.

이후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선생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리하였다. 미국 보스톤에서 제 20차 세계철학대회(the 20th World Congress of Philosophy)가 열렸던 1998년은 나의 학문적 이력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해이다. 이 대회를 주관한 미국철학회에서는 비영어권의 소장 학자들로부터 논문 공모를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논문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고 논문의 주제를 쉽게 정하지 못하던 나에게 롤즈의 정의론과 경제체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하셨다.

일반적으로 롤즈는 현대 복지 국가를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옹호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롤즈는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을 그의 『정의론』 전체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뿐만 아

나라 근본적으로 공리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복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의론과는 결코 합치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다만 그는 자신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와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자신의 정의론과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체제 중 어떤 체제가 자신의 정의론과 더 잘 합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정해질 문제일 뿐 정의론 자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는 롤즈의 정의론이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가 롤즈의 정의론 틀 안에서 원칙적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입론을 펼치고 싶었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논문 초고를 읽으신 후 논지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면서 다만 논증의 완성도를 위해 다양한 조언과 함께 크게 격려해 주셨다. 그 덕분에 나의 논문은 미국철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그 이후 박사 학위를 마치기까지 그리고 여러 후배들의 논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지도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논지 자체는 가능한 한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고 다만 그 논지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논증에 대해서는 논증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탈자 하나까지 참으로 철저하게 바로 잡아 주셨다.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매킨타이어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매킨타이어는 서양에서 근대이후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로 대변되어온 행위 중심의 의무 윤리학에 맞서 인격 중심의 덕의 윤리학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런데 황 선생님께서 2007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으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연구하신 주제 역시 덕의 윤리학이었다.

사실 덕의 윤리학 혹은 덕 그 자체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비롯된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60년대 학부 시절 스스로 호를 ‘수덕(修德)’으로 하셨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의 전통에

서는 언제나 ‘재승박덕(才勝薄德)’을 경계하여 왔다.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명문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정년을 마치는 선생님의 학문적 이력과 그 동안 출간하신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연구성과물들을 볼 때 재(才)의 승함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덕의 윤리학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은 비단 현재 서양에서 덕의 윤리학을 주도하고 있는 매킨타이어라는 서양의 학자를 넘어서 한국인의 윤리적 정조의 가장 밑바탕에서 연원하는 것이자 당신 스스로 정하신 삶의 좌우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번 제 6차 매킨타이어 국제 학술대회 참가는 단순히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학술여행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노팅엄대학교 학술대회장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선생님께서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보여 주셨다.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바로 며칠 전 출간된 이 저술은 동서고금의 덕 윤리에 대해 지난 5년간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들을 총망라한 방대한 저술이었다. 연구 결과물 제출시한은 아직도 3년여 남아 있고 연구 마감 시한마저 아직 2개월이나 남았지만 선생님께서는 벌써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신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 동안 연구보조원에서부터 공동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왔었다. 그때마다 나는 선생님의 학문적 성실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의 충실성은 제자된 자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선생님께서 그 제출기한을 어기는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저술의 첫 내지에는 선생님의 수려한 필체로 매킨타이어를 위한 헌사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매킨타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품고 계셨다. 이 학술대회가 매킨타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다섯 차례 학회에 그가 꾸준히 참석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미 선생님께서는 매킨타이어를 직접 만나기 위해 몇 차례나 시도를 하셨다. 우선 기억나는 것은 [다산철학강좌]의 연사로 매킨타이어를 초대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셨었다.

([다산철학강좌]는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에서 운영 자금 전체를 제공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제 1회 강연은 작고하신 김태길 교수님께서 “공자사상의 현대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4차례 강의를 해 주셨다. 그 이후 칼 오토 아펠, 마이클 월처, 뚜 웨이밍, 찰스 테일러, 지젝, 마이클 센델 등 그야말로 서구의 쟁쟁한 거장들이 4편의 새로운 원고를 통해 한국의 식자들과 뜻깊은 교류를 가졌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매킨타이어에게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 주 노트르담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선생님께서 매킨타이어를 직접 만나고 싶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젊은 시절 급진적인 맑시스트에서 출발하여 현재 매우 보수적으로 보이는 덕의 윤리를 주창하고 있는 그의 학문적 이력에 대한 더욱 진솔한 소회를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특히 그의 부인은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부터 매킨타이어는 유교 사상에 심취하여 덕의 윤리에 대한 동양의 고전적 담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선생님 역시 국가석학으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덕의 윤리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동양과 서양에서 덕에 대한 담론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며 그 현대적 의의가 무엇인가에 골몰해 오고 계시는 터라 매킨타이어와 활자화되지 않은, 혹은 활자화될 수 없는 깊은 학술적 담론을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킨타이어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마저 매킨타이어는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선생님의 실망은 무척 크셨으리라.

우리는 고유한 맥락 안에 태어나며 이 맥락 속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다양한 윤리적인 원 체험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 체험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켜켜이 쌓여 우리의 가치관의 바탕을 이룬다. 그런데 근대 서양의 학문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서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대부분의 강좌는 서양의 윤리적 담론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

니 대학에서 [윤리학] 강좌는 좋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공부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자율성을 생명으로 해야 마땅할 [윤리학] 수강이 이처럼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둔한 내가 보기에 1986년 1학기 서울대 윤리학 전공 강좌 역시 크게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만일 지금 황경식 선생님께서 윤리학 전공 강좌를 다시 맡게 되신다면 아마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윤리적 원 체험들을 기초로 그 동안의 축적하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정말 선생님의 윤리학을 펼쳐 주시리라 확신한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그 동안 생명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변되는 첨단 과학들이 장차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셨다. 그렇기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의 표현처럼 ‘후학들을 게으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과 함께 그 학문적 정점에서 정년을 맞으셨다. 이제 비록 몸은 대학이라는 제도화된 틀에서 자유를 얻으시겠지만 그 크나 큰 학덕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금처럼 불비한 후학들을 항상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존경하는 황경식 선생님의 정년을 맞아 경하의 말씀을 대신하여 사마천의 《사기(史記)》사기의 한 구절을 삼가 올린다.

“언제나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여
드디어 마음으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리라!”
(好學深思, 心得其意)